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00호 현대불교 2008년 10월 8일(음력 9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상대가 밭더라도 바로 내 근본에다 팽개치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석존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너무 아파서 다 죽게 되어 일어나지도 못하는 데 석존 법기를 원하니까 한번 돌려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몸 좀 부추해 달라고 하면서 몸을 일으키니까 “몸이 내가 아니니라. 몸은 구름 한 조각과 같고 꽃 이파리 하나와 같고 기슬에 떨어지는 가랑잎 하나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그리고 인생은 물 흘러가듯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어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고 부처님의 마음이고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네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를 쓰다듬으면서 “허허, 평생 동안 형제 부모 자식에 대한 착을 모두 놓지 못하니 결국 네 집에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에 대한 착도 놓아라. 몸도 일평생 네 집으로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한 걸 입혔고 아끼고 씻기고, 또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고 성한 거만 먹었건만 네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네 몸뚱이는 너를 따라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착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을 떼려라고 해서 ‘재산을 버려라’ 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모든 착을 떼라는 것은 ‘그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으니 주인공만이 이끌여 줄 거다.’ 하고 탁 말져 놓으면 때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난 뒤에,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아무리 나를 배신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준다면, 그러다가도 바깥이 추우면 따뜻한 데로 찾아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할 자식을 뒀어도 나중에는 아주 효자가 되고 충성하고 아주 바르게,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알고 탐구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착을 떼어 놓고 사랑하면서 좋은 말을 해 주고 이렇다면, 밭다 곱다 이런 생각 말고 집에 들어오면 그저 부드럽게 “애, 굶지나 않나? 나가서 며칠 밭이 지났는데 어디 가서 굶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하고 좋게 말해 준다면 아무리 미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인공에다 탁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말을 해 주

면 자식에게 자각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이력하고 왔는데도 어머니가 야단도 치시지 않고 좋게 말을 해 주시는구나.’ 하고 언젠가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착해지는 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그렇게 말을 해 주고 그렇게 행을 해 준다면 금방 고쳐잡니다. 밭더라도 바로 내 근본에다 팽개쳐요. 근본에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말져 놓고 하신다면 우리 제주의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어디다 내놔도 땃땃하고 당당하게 인간으로서 자유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하면서 자식을 이끌어 가고 조상들을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묵은 빛을 갖고 아래로는 새 빛을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고 100% 다 줄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그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믿고,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 마시고 ‘오래 그러려나... 나도 자식 노릇을 할 때는 그랬었다.’ 하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잘못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 아랑과 지혜를 갖는다면 중요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착을 떼고 사는 사람은 분할 것이 없지만 그냥 100% 착을 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길렀는데 너 장가들고 나서는 이렇게 나를 버리느냐.’ 하고 ‘배신했다’ 또 ‘예전 같지 않게 한다’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그 귀여운 자식을, 얼구절구 기른 자식을 자꾸 속상하게 만들어 주고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원주에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자식 다섯을 낳아 놓고 부인이 그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이 한 푼 두 푼 벌어서 월급집을 하게 되고 아주 부자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만 남편이 예쁘고 나이 어린 마누라를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그러기에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을 한다면 봐 줄 수 있지 않느냐. 남편이 오죽해서 그렇게 했겠느냐. 어려서 장가들어서 가난에 찌들고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하고 무슨 애정이 있었느냐. 그러나 애정 한번 느끼면서 살아 보겠다는데, 그것을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누이동생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

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면 봐 줘라. 그리고 애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면 따뜻하게 말해 주고 ‘여보 당신, 다니더라도 잘 자시고 다니시오. 어쨌든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

추춘들이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쓰러지거나도 한다면 큰일 나지 않소. 나는 어쨌든 간에 말이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참, 당신은 사람도 아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소.” 하

만 아주 뇌리에 꼭 새겨 두니까 물건을 못 받는 겁니다. 돈을 주고서도 물건을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 ‘그 사람 오면 돈 줘야겠다.’ 하고 만 있으니 물건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림 · 최주현

겠지요.’ 하면서 좋은 말로 해 주고,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보약이라도 달여서 병에다 담아서 그 집으로 보내 줘라. 심부름을 시켜서 보내되 또 그것도 싫다 하면 그냥 고만두고, 싫다는 거 일부러 억지로 하지 말고 만나는 게 싫다 하면 만나지도 말고 그저 편안하게 해 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내 말을 듣고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살 양으로 쪼끄마한 장사니마 부지런히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작은마누라가 재산을 다 거둬서 나가 했어요. 쓴 사이도 없이 그냥 거둬서 갔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마누라가 그냥 죄 굶어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미안해서 죽겠거든요. 큰 마누라에게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부인이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우선 혼자 있을 동안만이라도 애들의 아버지가 돼 주세요. 나는 그저 당신을 뒷바라지 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드나들면서 편안하게 만날 사람 만나고 하시오. 애들의 아버지인 당신이 우리 가족의 하늘이고 기둥이고

면서 “그래, 질투도 안 나오?” 이러더라 얘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면... 질투를 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괴롭겠소.”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을 잡아서 얼마나 그 마누라를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세련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 당시의 여자, 새로 얻은 여자보다도 더 아름다운 미인이더라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거 보고 난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13층이나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잘 삽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억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알려 주면요.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안되더라 이러거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내가 필요한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주를 하시더라도 힘이 없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시주하는 것도 주인공에 진짜로 아주 지극 정성으로 다 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시주를 해도 힘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깁니다. 여러분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 준 것만 생각하고 물건 가져온 것은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돈 준 것

중국 나중에는 ‘그렇게 해도 안되더라. 그러나 돈 내놔라.’ 이룰 수 있는 거죠. 백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만나 본 병든 사람들이 수백 수천, 아니 수만이라고 그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스물 몇 살부터 지금까지 이려고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참 그때는 말없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그려진 백 원짜리 그걸 세 개씩 갖다 놓고 그냥 가기도 하고 써 놓고 가기도 했거든요. 모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생각으로 기도를 하고 갖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같습니다. 왜 삼분의 일은 그렇게 가는데 삼분의 일은 그렇게 못 갑니까? 또 그렇게 시주한 것으로, 신도님들이 밥도 못 먹을 지경이

26면으로 계속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있는 출가 수행승려와 재가 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식별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분 (재가불자)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 과정)



불교 각단예불 및 천도제의식

- 1. 각종 전문 재의식
- 2. 사물다루는법
- 3. 천수바라
- 4. 사다라니바라
- 5. 오공양작법
- 6. 요잡

● 불교의식수용반 : 연화무, 해원무, 학춤 ● 연구반 : 안정사 범음범패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필기도구, 녹음기



월 10만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당 승현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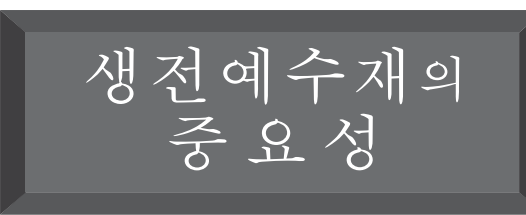


055)649-6711, 010-8533-6775 /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교육도량 연구회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글쓴이 : 예천 법사

책자 안내

-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인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식처 조성의의.
- ⑨ 부록 : 십이생상숙(十二生相屬) 백발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농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생애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깨끗한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킵니다. 다음 다슬기 10kg를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